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29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1. 27(금) 15:00 ~ 17:28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화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9개의 보고안건과 1개의 논의사항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위원회도 영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린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즉시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송해 드린 내용 중에 안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혁신 TF 일정변경 조정의 건은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보고 건은 마지막 부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은 회의자료 64쪽에 있습니다.
역시 오늘 회의도 종이가 없는 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안건 9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사항에 포함된 것은 이진희 위원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폭력 대응체계 TF 관련 내용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자료 4쪽입니다.

제 288차 회의에서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2개 안건 모두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진행된 289차 국제예술공동기금 리서치 공모심의 결과보고도 역시 수정의결이 되었고, 290차 회의에서는 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4.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데 보고를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9개의 보고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임감사님은 나주 본청에 계시고 저와 몇 분의 위원들은 예술가의 집에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이기 때문에 계신 곳들이 모두 다를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오늘 안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사항 9건과 논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 부서는 총 3개의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에 대한 2차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한 논의입니다.

제일 마지막 박스에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10월 22일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딱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진행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158억 8,000만 원에 대한 총예산 중에 운영비와 관람 지급료를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번 달 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논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무용과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2% 할당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에 쏠릴 것이 우려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국악 쪽에서는 특정 가격대의 공연들을 묶어서 홍보를 진행했고 무용도 그럴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아시는 것처럼 24일 0시부터 해당 쿠폰에 대한 신규발급이 즉시 중단되었고요. 기 발급된 예매처 할인권도 예매가 중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6종의 모든 할인쿠폰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체계나 성과평가 연구와 관련된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준비들이 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65만 장에 가까운 할인쿠폰 발급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사용은 8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3째 주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려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4만 1,000장이 활용되었고요. 3억 3,000만 원 정도의 할인쿠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86.2%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나마 소극장들이 공연을 재개했던 부산과 대구가 2% 내외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쪽은 4%정도로 별도의 특정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 수도권이 90% 이상의 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경 측에 향후 집행전망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12월에는 12억 원 정도 집행을 전망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12월 안에 사업재개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당초 문체부가 예경과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내년 1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권 6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괄 사업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중기부에 이런 할인권 사업이나 코로나 긴급대책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모니터링 업체가 데이터베이스상의 데이터를 받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실무담당 차원에서는 현재 한 달 정도 사업이 운영되어서 당초 승인을 해 주셨을 때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자료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셨습시다만 또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술계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에 또 다시 처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각종 코로나를 극복하는 장치 역시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사항이 있고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란 위원

- 소소티켓이라고 불리는 공연관람료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쿠폰 발행으로 공연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4일 기준으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24일부터 저한테 직접적으로 문의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기 발급된 쿠폰도 사용할 수가 없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자체가 막힌 것이 아니라 관람을 하려고 받아 놓으신 분들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기존에 예매를 하신 분들 가운데 단계가 격상되면서 거리두기 때문에 예매가 취소되면서 재예매를 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관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형태의 취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면 쿠폰이 그냥 삭제되는 상황이라 관객들은 그 상황에 대한 컴플레인을 극단이나 제작사 쪽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현장에서 관객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종국 부장이 답변을 하시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연관람료 티켓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당일 즉시발급이 아니라 이들의 유효기간을 거쳐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미진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객의 변심으로 인한 귀책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예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할인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시스템 상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점은 분명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4일부터 공연티켓이 막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단 23일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6종의 할인권 에 대한 전체를 묶어서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크게 3가지인데 “24일 0시부터 신규발급을 즉시 중단한다.”, “기 발급된 할인권에서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모호한 지점인데요.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의 자체를 권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예매처나 안내에서는 아예 사용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어제 동대문 쪽에 가서 전시 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권고를 했지만 예매처나 일상 극장에서는 아예 사용도 못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업 운영처인 예술경영센터 측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보완을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경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현재로서는 재기 시점을 알기 어렵지만 한 달 간의 운영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불편사항을 정리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물론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오늘도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서 방역단계를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술 중심으로 어떤 대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란 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술 활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쿠폰 사용이 온라인 공연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실제 저희가 10월 22일 개시 시점과 맞물려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예경 측과 문체부에서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시스템 개발에 한 달 반이 걸린다는 것을 예경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용이 어렵겠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에서의 요구가 강력하다면 “제도를 여는데 한 달 반이 걸린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예매처 사이트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는 예경 측 실무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즉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온라인 쪽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오프라인으로 1차 사업 때 풀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차 사업 개시일은 언제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당장은 12월 1일부터인데요. 현재 발급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1차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지금 온라인티켓 관련해서 이런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실사 현황을 보면 연극, 뮤지컬이 90%입니다. 결국 연극, 뮤지컬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은 7.5%고 나머지 장르들이 3%정도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용해 봤거든요. “왜 클래식이 이렇게 적을까?” 실제로 전문가 자문을 할 때도 이 얘기는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예를 들어 클래식뿐만 아니라 국악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매하는 곳은 인터파크나 예스24 같은 예매처 8곳에서만 가능하다보니까 저만 해도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예매를 하거든요. 그래야 수수료도 안 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술의 전당 회원이라고 하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처럼 큰 기관에서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프로그램 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 등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일단 제가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제기한 것도 당초에 예경에서는 5개로 한정하자. 아니면 'TOP3' 소위 말하는마켓세어를 85% 이상 갖고 있는 쪽으로 한정하자고 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매처는 티켓 수수료를 가지고 이득이라고 보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의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요. 사실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단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티켓 예매 사용처가 한정되었다는 배경을 설명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시죠.

이것을 요약하자면 방역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비대면 예술 활동의 빈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소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사용에 관해서 제도를 빨리 준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르의 안배문제.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미 활성화 장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실제로 사용할 때 한계가 있고 메리트가 별로 없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법 개선의 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 2가지가 모두 유효하니까 2가지를 포함해서 사업실행주체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급하게 논의를 하시고 논의 결과를 다음 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추진 현황 2차 보고는 일단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은 2021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2020년도 사업평가방향(안) 보고입니다.

이 사안도 역시 이종국 부장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2021년도 지역별 배분(안)은 저희가 이미 2019년도 평가편람 시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재단과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문예진흥기금과 해당 지역의 지자체별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의 배분기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매년 상주단체 사업에 대한 지역별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해당 평가 결과를 25% 반영하고 나머지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인된 국가 통계를 활용해서 해당 비율만큼 반영한 비중으로 최종 배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배분액에 대한 기준은 2014년에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보고드린 해당 기준에 따라서 17개 시도별 2021년도 지원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결과가 25% 반영되면서 해당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전년도 대비 평가 하락폭이 컸던 광주광역시나 충청남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혹은 1억 5,000만 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릴 사업평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성을 많이 요구하다보니 아무래도 17개 시도별 참여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공공 공연장의 수라든지 재정자립도 등은 해당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을 실제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 수준들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못해도 2개 혹은 3개 정도의 단체가 더 선정이 되거나 못 되는. 결국 해당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로 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주에 2차례에 걸쳐서 17개 문화재단 및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저희가 2020년도 사업 평가방향에 대해서 자체(안)을 잡아왔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검토배경으로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 사업 역시 공연프로그램, 특히나 공공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셋다운이 돼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변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올해에 한해서는 성과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평가의 실익을 고려했을 때도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10년간의 사업성과를 좀 보고요. 특히 2022년도 사업혁신 TF에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의 건실한 예술단체를 육성하자라고 하면, 저희 중장기창작지원사업은 그동안 쏠림으로 애초에 선정되었을 때부터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을 좀 타개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로 2개 사업을 통합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한참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 지어서 저희서 지난 10년간 상주단체육성사업에 대한 성과 현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1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각 지역별로 실적 보고서를 점검해서 코로나 시대에 각 지역재단 별로 어떤 대응을 보여 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시도 문화재단과의 사업개편 의견수렴 워크숍과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과의 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열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붙임1과 붙임2가 있는데요. 붙임1은 보고를 드린 14페이지에 있는 지역 배분액은 어떠한 산출 내역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붙임2는 올해 평가가 진행되었던 평가지표상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적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종국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질의를 하시고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의 배경은 2019년 시점으로 2020년도 지방비 이전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우수축제와 함께 이 사업을 지방이양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 사무처가 총력을 다 해서 대응을 했고요. “이게 지방으로 이전되면 이 사업은 그냥 유실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예산 당국과 끊임없이 했고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결국 2020년 한해 유예를 받았습니다. 한해 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소폭이지만

증액을 해서 정부(안)에 담는 것을 성공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7기 위원회의 지역균형과 관련한 사업의 성과라고 할 만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하나를 성공시키고 평가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이 최대한 성과가 나도록..... 평가라는 게 어려운 점을 많이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를 낸 것에 대해 모두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숨은 이야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보고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꼭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즉시 질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의 지점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상주단체사업도 몇 해 동안 하게 되면 휴식년제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재단별로 그런 부분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서울이나 부산, 강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필 위원

- 운영하는 전권 자체는 문화재단에 있는 것이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선발 등은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은 원래 전남 쪽이 워낙 강세라서 그쪽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업입니다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게 성과를 내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위원회로서도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왕성하게 전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시죠.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뭔가요? 진흥기금을 1대 1로 매칭하는 것 외에 성과를 공유한다거나 평가지표를 논의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인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3페이지 진행경과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자체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배분하고 실제 사업

선정 등은 지역재단이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공통대응지침이 빨리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오히려 지침을 먼저 제공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대응이 늦어서 단체들의 공연을 아예 일괄적으로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가장 큰 것은 “예술위원회가 이렇게 정했으니깐 그것을 근거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역별로 우수사례로 나온 것들을 세종시에서 모여서 공유도 하고 우수단체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예술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독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문체부장관상을 다시 신설하거나 위원장님 표창 등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광역 문화재단들의 실무담당자들도 사업개선 노력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순히 평가등급만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격려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연조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전고필 위원

- 제가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공연장상주단체의 지원사업의 재원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가고 공연장을 관리하는 주체로까지 갑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공연장상주단체에게 지원을 합니까? 실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리자들이 극단이 마음에 안 들면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전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지난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별로 이슈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위원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초창기에는 뻣뻣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17개 지역을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협약 방식으로 바꾸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열어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문예진흥기금이 광역시·도로 먼저 가고요. 거기에서 50%의 금액을 매칭해서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선정된 예술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 공연장에 먼저 주고 거기에서 재배분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의 평가결과도 기재부에서 경평을 받듯이 상반기가 지나서야 확정이 되는 등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도에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들이 결국 2021년도에 검토가 되는 딜레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의 실익보다는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해당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의 갈등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 말해서 공공 공연장들의 힘이 더 강하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지역은 이미 상주단체의 적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육성 모델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상주단체 모델이 유효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지속하겠다고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 등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요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강조해서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한계가 있는 것이 예술단체의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에는 지나치게 공공 공연장 중심의 사업 설계와 운영이 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원 자체가 공연장으로 가지 않고 공연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1년부터는 관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당장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을 목표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재단으로 바로 교부가 됐으면 하는 반면에 회계 상 불가능한 재단이 있다는 것을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방방곡곡 문화공감 역시 우리 문예진흥기금 사업이거든요. 이 2개 사업이 전국의 문예 회관에 내용을 채우는데 기여도가 월등이 높을 것인데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 측면으로는 지방비 이양, 지역만을 위한 사업은 지역의 예산인 지방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에 갇혀서 이것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때로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수립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강력한 지지도 필요하고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의지도 함께 실어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부장의 보고 중에도 있었습시다만, 연말이 되면 광역별로 우수사례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에서 선정된 분들끼리 모여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날 당일에 경연대회를 해서 위원장 상을 받으면 신문에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의 품격을 올리려고 올해는 장관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점을 찍어서 조금 더 강하게 제도로 자리할 수 있게 평가와 경연까지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장치를 찾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향후 진행일정에서 역대 지원성과를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문제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단체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있고 어떤 단체들이 그런 것을 보여줬는지를 정리해서 알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축적돼야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지역 예술에 대한 지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단순히 내부 논의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 과정에 참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날짜가 잘못된 것인가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초면 알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내년 초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를 하시죠.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2020년도 사업 평가방향(안)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은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1차 년도(2019년) 평가 결과 및 2차 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인데요. 역시 이종국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 부서는 마지막 보고안건입니다. 아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입니다. 히스토리로 따지면 공연예술단체전문인력육성사업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 모델이 상주단체였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생긴 것이,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의 위원이 아닌 경우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연혁을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자체가 여러 가지 손발을 맞추면서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 년도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실제 반년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평가를 진행하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마찬가지로 평가가 당초 예

정되었던 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했고요. 평가단은 현장의 각 장르별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특이한 것은 단체운영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노무법인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예술작품이나 소위 말하는 예술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단체로서 얼마나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공정하게 단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창작활동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습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관리해 왔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장장 3개월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술단체들은 소위 말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느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정운영 설문조사를 보시면 화두가 되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운영 설문조사 및 추진 경과 및 처리 방안입니다.

이것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홍태립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연극단체에서 23개 단체가 성명서를 먼저 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업 설계를 해도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았던 단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7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요. 그 중에 7개 단체가 사례비 지급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피해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인터뷰를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단체의 대표들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 혹은 소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큰 목적은 단체들의 문제점을 적발해 내고 처벌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인식들이 개선되면서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신고들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이것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탐다운 형태로 내려왔을 때는 해당 단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 굵아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개선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절차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법률자문검토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받고 나서 실제 페이지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차 년도는 단체별로 상황에 대해서 스킨십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예술인고용보험이라든지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교육 자료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런 형태를 강화해서 2차년도에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공개적으로 단체들이 질의한 것이 있잖아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그 사안은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원단체 및 평가위원 간담회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극단체 23개 공동 질의서를 받고 나서 각 장르별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의 스타트가 늦고 애초에는 최대 2억 원씩,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어서 단체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획을 짰는데 실제 책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평균 1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노력을 하기는 한 것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 설명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들도 따로 만나서 실제 이 제도와 관련된 개선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간담회를 장르별로 진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그렇고 최초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단순히 설명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담회도 진행되고 설명이 잘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불임자료에도 있지만 1차년도에는 900만 원이 선정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2차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년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동결입니다. 더군다나 평가를 유보한 상태라서 해당 단체만 특정하게 많이 올려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여쭙본 것은 그때 성명서를 보면 지원의 한계는 다른 쟁점인 것 같고요. 감리하는 과정에 대한 불편함을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송시경 본부장도 요약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현재 이종국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 예산규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지원 하는 것인데요. 단체들은 1차년도 계획보다 2차년도, 3차년도를 성숙, 발전으로 해서 예산의 규모가 커졌으나 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렸던 얘기는 주어진 부분,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셔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기간이 당초부터 늦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회계연도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의 경우에도 내년 4월까지 가야하는 등 어중간하게 걸리는 문제는 3년차에 모두 정리하되, 그러니까 3년차는 2월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으로 하면서 향후에는 이종국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장기창작지원과 상주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을 할 것인지?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그리고 지금 공정운영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평가 편람에서도 공지가 되었고 저희가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현재 보조금 사용 규정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세부적인 스킨십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대표자 입장에서 볼 때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키려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후속조치로 예술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극분야는 KTS가 있고요. 무용분야는 오롯이라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용을 할 때 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자체 운영규약이 있는데요. 해당 단체들과 저희 담당자들 전체가 만나서 워크숍도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차년도에는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를 쥐어짜서 우수한 결과만 냈던 진행방식에서 벗어나서 과정 자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창작 활동 과정에서도 반영시킬 수 있게 유도하고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포지션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혼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2차년도에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24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대답이 되셨나요?

○이원재 위원

- 예,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의견인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주목한 게 일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로 나온 성명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나 현장 공연예술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방법에 대해 오해가 생기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봤고요.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지원을 하고 끝나는 관계를 넘어서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든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든 그런 것이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트너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함께 개선해 나가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받는 등의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창작산실 연구 작업을 한 결과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어서 그것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간 행정용 연구 작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평가 서식을 무엇으로 개선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들 중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현장이 강화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행정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것은 사실 이종국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지원 부서에서 해야 할 포지션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공정운영 설문조사가 가진 기본적인 예술계의 관점이나 인식의 문제는, 사실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리감독의 강화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술현장에서 이런 생태계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예술위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설문 방향이나 내용 같은 것들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면서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

술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어렵게 진행하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단체 대표자 대면 인터뷰 진행 내용에서 “응답자가 발달장애인으로 신빙성이 낮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가 e나라도움에 설문조사 대상이 사례비를 지급 받은 분들은 신상명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단체는 주요 출연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주연급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된 것인데요.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발달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페이백에 대해서는 일절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안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기재하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지급이라든지 연습과정에서의 배려가 적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보완해 달라.” 그것을 2차년도 이행사항으로 해서 전달한 바 있고 해당 단체에서도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진희 위원

- 예, 그러니까 현장의 특성이라든가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e나라도움에서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뿌린 것 같고요.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 드리고요. 어려움은 아는데 문장 자체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

-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이라서 신빙성이 낮은 게 아니라 위원회가 질문을 잘못해서 이분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게 맞다. 지금 우리 토론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문장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질의하지 못해서 본인의 의견을 충실히 표현하기 어려웠다.”라고 기재되는 게 맞겠죠.

○박종관 위원장

- 의도는 알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구를 다듬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평가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의 경우 당사자와의 인터뷰가 추진이 되었나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그렇습니다.

○박경주 위원

-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나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희가 당사자에게 설문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담당자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지?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를 해 주신 분에 한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저희가 기재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면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요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해당 단체인 ○단체에서 “신빙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 질문의 요지는 단체의 대표자 대면 인터뷰 진행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제기된 곳의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일단 ○단체 뿐만 아니라 처음에 설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분들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신 분들만 저희가 유선전화 혹은 화상통화 등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해 달라.” 아니면 “이것이 맞느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실과 논의를 통해서 구두의 정황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페이백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페이백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침이나 불시적인 감사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페이백이 없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것은 사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단체와 함께 합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런 합의의 과정 없이 그냥 불시에 이런 메일을 발송해서 사업대상 단체에 포함된 인력들에게 설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과정도 궁금합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1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1차년도 평가 편람 및 회계 정산 참고 자료를 저희가 2020년 2월 17일에 발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운영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은 적발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체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애초에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할 때도 창작산실과 차별성으로 단체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한 운영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애초에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달을 했고 분명히 서면과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막상 이 설문을 받아 보시는 대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애초의 저희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점들이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차년도에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애초의 의도가 적발이 아닙니다. 현재페이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성명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체들이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현 제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어떤 게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제한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2차년도에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사업 운영방향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단체별 처리방안에 보면 “500만 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페이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뒤로 돌려서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합법적인 방안으로 해서 단체가페이백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맞습니다.페이백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라 단원들의 입장에서도 대표자들이 벌금을 물었는데 “통상의 벌금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인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예술위원회의 관리 차원이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도 자체 규약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도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독려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사실은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금액과 실제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지원결정이 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대표자가 떠안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애초에 정액으로 3년간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먼저 공지를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게 하는 게 더 맞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저는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페이백 문제는 “현장에서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않아요? 국가의 기금을 10만 원이라도 유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술계에 만연해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니깐 저희가 이해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음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작곡가에게 가는 비용인데 그 중에 3분의 2를페이백으로 받은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데도 없습니다.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나 무용과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극에서는 부당한 게 있으면 같이 성명서도 내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을 예술위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고발하시는 분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해 알리거나 자기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어떻게든 단체의 대표와 얘기를 다시 해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미 인지한 이상 그것을 넘어가기가 너무 불편한 것이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부당한 것은 환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단체에게도 뭔가 페널티를 줘

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페이백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서도 예술계 현장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이희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페이백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와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때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문예위 차원에서는 사업 규모를 축하는 것을 인정해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그토록 자부담 경감에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전부 연장선상에 있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끊어내야 할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위원회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의 구조라는 게 단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량한 선례를 자꾸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창작지원이야말로 7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7대 위원장인 저의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단년도, 단기간 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정말 계획 가능한 정도의 일정한 양, 일정한 크기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로는 처음 풀어낸 것입니다. 3년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그 양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꼭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 관광공사가 낸 비디오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경우도 우리 중장기창작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성과들은 곳곳에서 나오는데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52억, 104억, 156억 등 단계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예산상 자율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서 역동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 하에 이 예산 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중장기사업을 다루면서 해야 할 충분한 사무처의 사업추진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과거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비의 크고 작음과 상관 없이 충분한 인력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오늘 보고 속에서는 스킨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소통하고 꼭 현금으로만 지원하지 않고 현금 이외의 수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이 제도가 양질의 결과를 내고 결국 이게 공연 속의 생태계 전체를 바꿔내는 사업으로 의미 있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산의 추가 확보 실패. 그리고 이른바 설문지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 범위의 신뢰 부족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수많은 오해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요. 그리고 최대한 대응을 해서 현재의 조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의도가 옳았다고 해도, 방법론이 그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어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페이백 문제 등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것은 관행이었다.”라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이것 때문에 예술계의 여
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예술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어려워
도 끊어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의무조항 등을 경감시킨다거나 하
는 제도들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몇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내서 중
장기창작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완해서 보고를 다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쯤 지났는데요. 오프라인 회의와 달리 굉장히 피로도가 심
하네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러워도 10분정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종국 부장은 퇴실해 주세요. 왜냐하면 회의장 안에서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니 퇴장하신 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통합홍보 주관처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아르코인력개발원의 김리나 대리가 계신 것 같은데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리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대리

- 오늘 홍승욱 원장의 부재로 인해서 대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통합홍보 주관처 공모사업 결과보고입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브랜드인 차세대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주관처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선정규모는 총 1개 주관처이며 지원규모는 1억 4,730만 원으로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간 접수를 진행하였고 총 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

니다.

신청접수를 진행하면서 저희 문화일반분야 5인의 위원님들께 심의위원 구성 요청을 서면으로 드렸고요. 사무처 구성은 2배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총 39인의 위원님으로써 총 49명의 위원을 저희 시스템의 무작위추첨으로 섭외순위를 결정한 후에 섭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회는 11월 4일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을 했고요. 서류 및 PT·인터뷰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제척 및 회피 현황은 없었고 프로젝트컴퍼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통합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리나 아르크예술인력개발원 대리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리나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은 2020년도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개최 계획(안)인데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2020년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리고 7기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서 공론화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고요. 저희가 3개 소위원회와 사업혁신이나 코로나19대응TF 등 운영과정에서 논의된 아젠다들을 대내외에 발신하고 현장예술계 등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간 소위와 TF 활동 등에 대해서 외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의 고민을 연계하는 게 본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소위원회나 TF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소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명은 “아르크 오픈토크”라고 잡았고요. 추진개요에 나와 있듯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입니다.

장소는 혜화역 앞에 있는 공공그라운드라는 곳이고요.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서 병렬 진행을 합니다. 지하 1층은 수용인원이 120명이고 지상 5층은 50여 명이 됩니다.

주요 참여자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진행방법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모시고 저희는 온라인 중계를 별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관은 저희 소위원회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32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도 같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3페이지 세부 추진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세션이 있는데요. 총 11개의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클로징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각 세션의 주제와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존중했고 양자 모두 거기에 맞춰서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세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제목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행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닝 행사로서 이 행사가 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7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요. 각 소위별로 갖고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코혁신TF 혁신과제 추진경과 현장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개의 장소에서 9개의 세션, 각 소위원회나 TF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세션별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행사가 있습니다. 클로징 행사에서는 토론회 총정리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 예술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세션 일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션 일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프닝 행사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한 곳의 장소에서 하고 클로징 행사 역시 한 곳의 장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세션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아코 현장 대토론회 세부일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가 되시기도 하고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세부일정표는 약 95%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확정하고 세부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션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션들이 발제와 발제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방식이 다양하고 자율토론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세션별로 녹취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자료집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논의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대단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저와 이진희 위원님이 성희롱·성폭력 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일차 1세션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해 주실 토론자들을 다양하게 많이 모셔 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을 110분만 확보하는 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내부 TF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괜찮다면 어차피 시작은 1시 30분부터 시작인데 1시부터 시작해서 3시 20분까지로 해서 30분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2일차 오전 세션은 없고요. 2일차 1시 30분부터 3시 20분에 끝나는 세션4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후에 세션이 있기 때문에 뒤로는 연장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추가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 진행이 어렵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한다면 2가지를 동시에 저희 유튜브 계정으로 할 수가 있나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16일 예술위원회 유튜브에 다른 기관의 행사가 중계된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아르코현장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중계 유튜브를 만들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 행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저희 아르코 유튜브에 옮겨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마지막 클로징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되어서 든 고민인데요. 사실 세션이 9개고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세션이 9개고 오프닝과 클로징을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세션이 9개인데 9개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행사 때, 그것도 당일 20분이나 30분의 브레이크타임을 가진 다음

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저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마지막 토론자로는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유란 TF 팀장님을 모시는 것으로만 했는데요. 저희 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희롱 대응 관련 TF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세션2와 세션6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모두 감당을 하시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진희 위원님과 유은선 위원님을 추가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 사무처에서 각 세션별로 들어가서 요약할 예정입니다. 요약을 해서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토론자로 마지막 클로징 세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요. 가능하면 마지막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진행하는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다만, 이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토론회를 종합해서 하다보면 마지막에 종합토론을 하고, 사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번 모여서 리셉션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클로징을 하는 게 통례적인데요. 우리가 자료집 등을 충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모여서 같이 정리를 하자는 의미일 텐데요. 온라인으로 이런 주제가 없이 모이는 것은 특히 어렵거든요.

○이원재 위원

- 이것은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지막 세션에 꼭 그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공유하는 세션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토론회를 하고 올해를 마치면서 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젠다 중심으로의 향후 위원회의 고민이나 과제들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각각의 세션에 모든 것을 종합정리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고민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거기에서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만약 그런 방식으로 클로징 행사가 계획된다면 지금 제목이 주는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2021년, 아르코의 제안”이라고 하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총괄해서 뭔가 전망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요. 저는 클로징 행사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론회 한번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해 동안 고민하고 활동을 진행했던 아젠다를 모아내고 현장과 소통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행사의 제목이 무게도 무게지만 제목 자체가 예술위 중심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 대해 변경하는 부분을 오늘 논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세션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제목은 아닙니다. 물론 클로징 행사는 사무처에서 가제를 붙인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겁지 않게 그리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약 개념이 아니라 주요 쟁점별로 주요 의제를 뽑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 “아르코 23개 혁신과제 추진경과 보고”라고 되어 있고 사회자, 보고자, 토론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토론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태림 위원

- 이것은 저희가 제작년 12월에 아르코혁신안 추진경과 보고회를 예술위 주최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르코비전2030도 나왔지만 아르코혁신과제 중심으로 그동안 어떤 경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술현장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희 위원

-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화통역에 관련된 부분과 타이핑을 통해서 수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시각타이핑을 통해서 토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집의 사전제작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에 결과물을 어떻게 모아내서 다시 공유할 것인지까지가 대토론회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챙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것이 영상 송출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것은 한글로 발제자료를 내서 올리는 것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각 세션별로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PPT정도로 해서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서 2장 내지는 3장 정도로 해서 핵심의제를 넣어주시면 영상을 송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PPT 양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이것과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때보니까 타이핑을 바로 해서 화면에 뜨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정리를 하시는 거면 그런 기술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없으신가요?

○이희경 위원

-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세션 4개를 맡고 계시잖아요? 아마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주요하게 나왔던 의제를 정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에서 2개로 나눠지게 된 것. 그리고 95%밖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 세션이 “보존과 창작사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세션이 “기초예술의 범위”라고 나눠졌는데요. 이렇게 구분되는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당초 하나의 세션으로 하다가보니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르별 다양성 문제도 있고 당초에 이 의제를 제안한 배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다 넣다가는 혼란스럽다.”라고 해서 아예 기능별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존과 창작”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창작방식”이라고 해서 각 장르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가 낫겠다고 생각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기초예술이란 무엇인가?” 에 “보존과 창작 사이” 라고 하는 키워드가 왜 들어갔는지가 궁금해서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이 의제가 나왔던 배경은 기초예술의 창작활동과 최근 대중성 부분에서의 접점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존과 창작 사이” 라는 것은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보고안건은 제6~8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서류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꼭 공유를 하실 사항들은 한번 강조를 해 주시는 차원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태림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저희는 접수 받은 보고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문학지원부 쪽의 문학선 관련해서 대응한 부분이 있고요. 공연행사 취소 관련 계약 미체결 시 체결방안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칭 문화예술지원센터시범단 설치 및 현장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정창호 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예술위의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고요. 안내드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공식 접수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최근에 극장 운영과 관련된 2가지 이슈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극장운영부 측에 전달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는 않았으나 간단한 내용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코극장에 고객지원센터가 1층에 있는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지하 1층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동권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르코극장 페이스북 SNS페이지에서 “방송에 많이 나오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소개하는 것은 극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 콘텐츠로 올리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극장운영부 쪽에 답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특히 첫 번째 고객지원 차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극장운영부 뿐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SNS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접수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때 담당자가 입장을 달아주는..... SNS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내부 논의에서는 사무처에서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과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답변이 올라갈 것입니다.

○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12월말부터 한지협과 지역간담회를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서 12월 행사는 모두 1월 이후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공정심의부나 문학지원부와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곧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42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회경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이것은 지난 번 이시백 위원님도 오 프라인 모임 때 제안도 해 주셨고요. 저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지역간담회는 되게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나면 공유를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원재 위원님께서 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다른 것은 그냥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 소위 때 제가 요청을 드려서 지난 몇 년간 위원회 전체의 연구용역이나 연구 활동에 대한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아니고 이후에 위원회의 연구역량이라든지 체계와 관련된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위에서 위원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최근 아르코에는 정책혁신부도 그렇고 연구용역이나 전문가가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적어도 예술분야나 예술정책 관련해서 예측 가능하고 축적될 수 있는 연구 트랙을 만들고 싶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연초 정도에 얘기하고 그것을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결되는 방법으로 연구 행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초에 정책혁신부와 정책혁신 소위에서 준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혁신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다음으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부장이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평등 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아르코대토론회 의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다만,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성평등 세션에만 머물지 말고 예술생태계나 지원정책패러다임,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토론자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별도로 미팅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예지 지원사업 편집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이번 아르코 대토론회 때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희롱 대응과 관련해서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 TF가 구성 중에 있는데요. 이 논의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션을 반영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3개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소통 차원에서 질의를 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히 안내사항으로 생각했는데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자료 75쪽에 보시면 사업혁신 TF 일정이 방역 상황과 맞물려서 변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안건으로 잡았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사업혁신 TF 워크숍 일정 변경에 대한 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격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정지역이었던 나주마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을 어렵게 잡아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논의된 것을 페이지에 반영해서 12월 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사업혁신 TF 워크숍 대체 일정(안)을 보시면 12월 4일까지 각 분과별로 논의하셨던 것을 지금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정리한 1차본을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7일부터 한 주 동안 살펴보고 논의를 해 주셔서 그 의견을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신 부분은 12월에 다시 조정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12월 28일 금요일 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사업혁신 TF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는 원래 워크숍을 제안할 때 사업혁신 TF뿐만 아니라 올해 7기가 구성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위원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하고 내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는 안 되

겠지만 적어도 마지막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12월 위원회 때는 보고안건 등은 압축적으로 하고 많은 시간을 올해 평가나 내년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점진적으로 저희 논의에 꼭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12월 위원회 일정이 마지막에 공지되어 있는데요. 12월 마지막 위원회는 심의결과 전체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이 얼마나 가능할지?

○박종관 위원장

- 일정은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논의사항의 일부인데요. 12월 28일 월요일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잡을 것인데요. 이날은 주로 정기공모심의를 집중해서 의결하게 되는데요. 이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이원재 위원님의 말씀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심의에 대해서 의결하고 오후에는 내년도나 올해에 대한 점검 등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무조건 방역 상황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고요. 그렇게 회의를 개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8일 하루를 회의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 여부 조정)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결은 약속한 오후 2시에 하고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다른 것을 먼저 하고요. 방역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사업혁신 TF와 관련해서 12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산이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기초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일단 사업혁신 TF의 목적은 2022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 문체부와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분야별로 제출된 과제들이 외부와 공유할 정도로 내용이 갖춰지면 현장하고 공유하는 것은 2021년도에 따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9가지를 모두 보고 받았습시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하는데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접수를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9개의 보고사항은 모두 처리를 했고 이제 논의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폭력 대응 체계 TF(안)입니다.
이진희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사실 이 안건은 논의에 붙일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TF를 지난 10월 말에 제안하고 그 이후에 2차례 정도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혹시 진행되는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두 차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된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TF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오디오가 끊어지네요.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전화가 와서 연결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록은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 총 2회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TF 구성은 작성된 문건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목표를 2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 그러니까 시스템 공백을 파악하고 그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예술위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안에서 예술위의 역할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찾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 지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예술위 자체 안에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예복이라든가 인권위 등과 연계하는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술위가 갖고 있는 내용들의 문제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TF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8월 3일에 예술위 입장문이 나왔죠. 그리고 12월 안에 예술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입장문에서 총 4가지 얘기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 이것은 지원취소로 갈음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후속조치로 매뉴얼과 행동강령을 만들겠다.” 이것은 지금 수정안이 나온 상태인데요. 올해 이것을 당장 반영하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론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현장의 검토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계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일단 지금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계 전반의 내용들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전혀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이 내용들을 TF에서 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요하게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과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붙임으로 대토론회 기획(안)을 제가 추가했는데요. 대토론회 기획(안)을 살펴 보시면 TF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진행과 TF에서 시스템을 검토하고 예술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돈해 나가는 작업들을 분리해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토론회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배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TF를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 공유해 드리면, 매뉴얼이나 강령을 만드는 것이 기초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의 다른 제도들과의 연관성이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하

나는 예술위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서약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지하거나 통제 등의 규제 중심의 대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평등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형성적 조치죠. 형성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어있고 이 부분이 “예술위가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을 드러난다.” 라는 것들이 토론 중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요.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TF는 한 차례 정도 과제와 내용들을 정리하는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연내에 예술위가 올 한해 진행된 경과를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문건을 작성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의나 논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TF에 외부전문가와 저희 위원 2인 그리고 사무처인데요. 사무처의 부서는 어디인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공정심의부입니다.

○박경주 위원

- 공정심의부에서만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박경주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TF가 꾸러져서 운영되려면 문화예술계 안에서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공정심의부 자체에서는 TF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목적의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진희 위원님 같은 경우가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나름대로 전문가인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공정심의부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공정심의부 자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해나 목적방향성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번에 TF 운영 관련해서 TF를 4회 내외로 운영해서 매뉴얼과 내용을 도출하는 것까지 공정심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까?” 이런 부분들도 쟁점 중에 있습니다. 사실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심의부에서 지금까지 다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전담하거나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없는 시스템이라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TF 결과를 기다리면서 TF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부 역량까지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정심의부에서는 12월까지 TF 결과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사무처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공정심의부에서는 어쨌든 TF에 참여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이해하고 백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희영 차장님께서 관련되어 자문회의도 꾸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손발을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공정심의부에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희롱 대응 체계 마련이라는 것을 진행하다보니까 당연히 예술위의 의지나 관점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와의 관계나 역할분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의 역할로 생각하기에는 비중이나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크다는 생각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TF가 꾸러지기 전에 흥태림 위원과 같이 갔던 자리가 공정심의부와 ○작가와 ○작가가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공정심의부 직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 공정심의부에서 하기에는 역할이나 방향성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TF가 꾸러진다고 했을 때 공정심의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심의부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심의부에 계신 분들과 이진희 위원님이나 흥태림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조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희 위원

- 중요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올해 목표까지 정리하고 나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도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F가 이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공정심의부와 굴러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목표까지만 완료한 후에 내년에는 논의체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짧게 의견을 드리면, 지금 서울문화재단도 ○작가와 관련된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TF를 담당하시는 이사가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저희 소위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복이나 예경 등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타 기관과도 교류를 해 보시고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느 정도 양쪽의 성과가 쌓이면 그 시점에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이원재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동의를 합니다. TF 안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술위의 포지션에서 해야 될 역할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가다듬어지면 만나는 게 혼선이 없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진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한 예술계” 이것은 절대치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할 절대적인 목표치 같은 것인데요. 보통 예술위의 의지나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의지나 관점을 넘어서 이런 일을 다른 전례나 이런 일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문제 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피로도도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진희 위원님이 잘 보완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결과물들이 향후 예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로 이어지도록 통로를 부지런히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대로 12월 전체회의는 12월 28일로 잡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는데요. 방역 상황을 봐서 확정지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날 위원회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분에 회의를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91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종료)

